하고 나서

사전준비 미흡, 그래도 보람

조 병 섭
충남 청양군 사무소장

"맥문동 있어요?"

"다 떨어졌어요. 조금 일찍 오시지"

이렇게 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줄 몰랐다며 생각밖의 대성황에 조금 당황스런 표정을 짓는 조병섭 소장.

애초에 전시회만을 생각하고 판매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은 탓에 품목또한 소비자들 기호에 맞추어 다양하게 구비하지 못한 것에 무척 안타까워 한다.

소포장 구기자 소비자에 인기

"수원에서 여기 까지 왔다며 구입해 갈 품목을 깨알만한 글씨를 적어온 소비자들에게는 무척 죄송스런 마음이었다"고 조 소장은 털어 놓는다.

충남지부에서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품목은 청양의 구기자, 구기엽, 맥문동을 비롯 공주 두충, 서산 일당귀, 금산 인삼, 당진 지실·애엽등 자연산을 포함 15종이 선보였다.

그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품목은 단연 청양 구기자.

600g단위로 깔끔하게 소포장된 구기자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가장 맞아 떨어지는 품목이었다.

트럭 가득 싣고 온 황기가 바닥이 났다.

일손이 모자라 포천 이인기 소장의 막내딸 까지 동원된 경기도 전시관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전시회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는 소비자들. 황기 꾸러미를 가득 안고 "사긴 샀는데 잘 산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할머니. 텔리비젼에서 보고, 국산 한약재를 사기 위해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건이 다 바닥나서 몇개 밖에 사지 못했다"며 아쉬워 하는 할아버지.

멀리 전라남도 광주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한다는 사람들, 약업사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내밀고 간 명함만 해도 수북할 정도다.

이 인 기
경기도 포천군 사무소장

"식은 땀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는 뭐가 좋습니까"

"당귀는 여자들한테 좋은 거라면서요"

여기저기서 쉴새없이 물어오는 소비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사전에 준비가 너무 미흡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기 쉽게 약재에 대한 성분이나 효능·효과 등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재해 놓는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이 소장은 노하우를 얻은 듯 자신있는 표정.

한의원 참여율 저조 아쉬워

정 형 모
전남 지부장

"국산 한약재의 우수성에 대해서 일반소비자들에게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는 정형모 지부장은 그러나 "실제 한약재를 많이 소비하는 한약방이나 한의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에 대해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고 털어 놓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차로 마실 수 있는 구기자, 오미자 등 주로 식품으로 많이 애용되는 품목들은 다량 판매실적을 올린데 비해 시호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약재로 사용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몰라서 사지못하는 현상'을 빚은 것.

따라서 다음 기회에는 한의원이나 한약방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낸다면 행사 자체가 더욱 내실있게 꾸려질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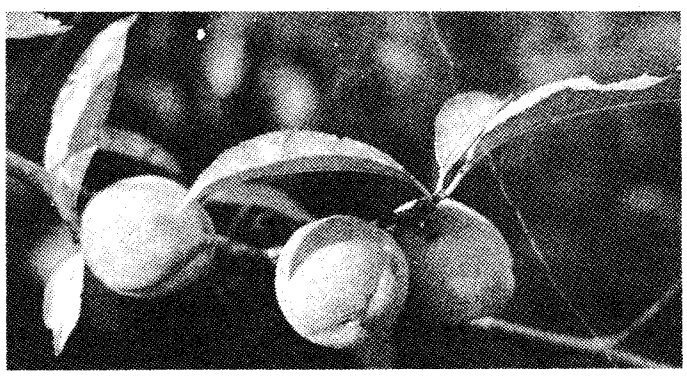
어찌됐던 연일 역도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로 하여 이번 우수국산 한약재의 전시는 이정도면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하는 정 지부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생약살리기운동의 훌륭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흡족해 한다.

손쉬운 민간요법 〈기관지천식〉

빛깔있는 책들 〈105〉 민간요법 中 발췌

정상적인 사람은 호흡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천식환자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면서 살아간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고 호흡 곤란이 오며 목에서는 소리가 나고 내쉬는 숨이 마시는 숨보다 길며 잠자리에 눕기보다는 앉아서 단정하게 있어야 편하다.

이 질환이 중증으로 이행되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며 정맥이 팽창되고 숨소리가 거칠면서 소리가 요란하다. 이렇게 수분 동안 계속되다가 잠시 편안할 때가 오기도 한다.



◇복숭아 나무

이 질환의 원인은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점막의 자극으로 흥분을 일으켜서 발생하는데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빈발하고 소아에게는 드물게 나타난다.

봉숭아씨, 살구씨와 뽕나무 뿌리 껍질, 꿀

사용법 : 복숭아씨와 살구씨는 껍질과 끝에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분말로 만든다.

뽕나무 뿌리 껍질의 겉표면에 꿀을 발라서 불에 쬐어 변색이 되고 손에 묻지 않으면 가루로 낸다. 이 약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 빻아지지 않으므로 제분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만든 가루를 각각 10그램씩 같은 용량으로 배합하여 물을 넣어 환을 만들어 하루에 3번 식사 30분전에 복용한다. 이때에도 생강차를 끓여 함께 먹는 것이 유익하다.

효능 : 복숭아씨는 맛이 쓰고 달며 약성은 평범하나 해소를 일으킬 때에 상기가 많이 되고 얼굴이 충혈되면서 기침을 연달아 할 때에 효력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천식으로 숨을 몰아쉬며 눕지도 앉지도 못하면서 고통을 느낄 때에 효력을 나타낸다. 성분 가운데 함유되어 있는 지방은 배변을 쉽게 하고 기관지의 경련을 완화시키고 점막의 자극을 풀어 주므로 천식과 해소에 효험을 본다.

뽕나무 뿌리 껍질을 약명으로 상백피라고 한다. 이 약은 해소나 천식으로 얼굴이 상기되고 열이 있으면서 가슴이 답답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숨을 몰아쉬는 증상에 복용하면 폐에 울체된 열을 풀어주고 혈압을 내리면서 상기 증상을 완화시킨다. 특히 천식을 할 때에 복부가 불러오고 때로 배에서 소리가 나고 얼굴과 수족이 약간 부으면서 호흡을 몰아쉴 때에 효험을 본다.

위의 약재들은 미약하지만 가벼운 이뇨 작용과 상기 증상을 내리는 작용때문에 천식의 모든 증상에 쓰인다.

계약 재배 안내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약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정신으로 **소백생약영농조합법인**이 탄생했습니다.

우수한 생약재배로 UR 대치 및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양질의 국산 생약재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95년 농가소득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재배를 실시하오니 많이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재배 내역

재배품목	재배면적	수매내역	비고
길 경	100ha	추후결정	
백 출	50ha	〃	
하수오	50ha	〃	
기 타	100ha	〃	

소백생약영농조합법인
임직원 올림
☎ (0572) 34-3330
32-8764

95년 재배할
종자·종근·종묘 분양안내

취급품목
◇ 당귀 ◇ 강활 ◇ 백지 ◇ 방풍
◇ 산약 ◇ 지황 ◇ 두충 등

한 림 농 원
代表 金 龍 漢
경북 영주시 휴천3동 40-2
☎ (0572) 32-8764
34-3330, 32-8534